

# 조선 말기 경기지역 상류주택에 나타난 남녀 공간구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Male's and Female's Spatial Composition of the Upper Class Houses in Gyong-gi Province in the Late of the Chosun Dynasty

**Author** 박형진 Park, Hyung-Jin / 정희원, 인하공업전문대학 실내건축과 조교수, 실내건축학박사

**Abstract** The spatial separation of male's and female's area due to the law of 'Naeoei' is one of the trademark features of residence by the building principle of 'Confucianism' in the upper class house in the late of the Chosun Dynasty. Thanks to modernized agriculture and commerce, the residence of 'Sinheung-Yangban' developed. And they were influenced by the economic and living characteristics than traditional custom. So the residence of 'Sinheung-Yangban' is very important in terms of the course of modernizing of the Korean traditional residence. Researcher figures out the influences of the law of 'Naeoei' in residence and the characteristics of male's and female's field in terms of daily life with investigating the residence of 'Sinheung-Yangban' as the upper class house in the late of the Chosun Dynasty. Through thi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properties of male's and female's field of upper class houses in the late of the Chosun Dynasty.

With this study, the followings are the characteristics of male's and female's spatial composition of upper class houses in Gyong-gi Province in the late of the Chosun Dynasty.

First, the traditional law of 'Naeoei' plays a primary role as the principle of building of upper class houses in Gyong-gi Province in the late of the Chosun Dynasty. With a natural result, there is a clear spatial separation as the male's and female's social role. Second, 'An-Chae' and 'Sarang-Chae' as male's and female's living space are separated physically, but real living life tends to be syntagmatically made with 'An-Madang' as the center. Third, spatial integration of 'An-Madang' as the center results in the development of architectural connection factors of 'An-Chae' and 'BaKat-Chae' adjoining 'An-Madang', facing 'Toei-Gan', 'Maru', and 'door'. Forth, the boundary of male's and female's areas is relatively clear between dwellers and visitors, but on the other hand, the separation of male's and female's spaces between family members has little significance.

**Keywords** 경기지역, 상류주택, 남녀 공간구성  
Gyong-gi Province, Upper Class House, Male's and Female's Spatial Composition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신분제도는 크게 지배계층인 양반과 피지배계층인 상인(常人)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의 주거공간은 유교적 조영원리의 적용 여부, 경제력의 차이, 노동력의 분담 형태 등에 따라 차별화되어 발전하였다. 경제적으로 지주이자 정치적으로 관료였던 양반계층의 주거는 조선조 주도층의 주거라는 의미와 함께 규모와 형식적 측면에서 민가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조선 상류계층으로서 양반의 주거는 신분에 따른 가사

규제(家舍規制)와 유교적 예제(禮制), 가례(家禮) 등의 유교적 조영원리에 보다 많은 영향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조선시대 양반주거의 남녀 생활영역의 공간적 특성은 16세기 전후 가례의 단계적 시행과 깊은 관련이 있다.<sup>1)</sup> 즉, 남성 영역인 사랑채는 문벌중심 양반사회의 결속을 위해 확장되고 화려해졌으며, 안채 영역은 가정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가정생활의 기능이 집약된 가정적 공간으로 변모하였다.<sup>2)</sup>

1) 김기주·김성우, 관·혼례를 중심으로 본 조선시대 반가에서의 행례 규범과 공간사용, 한국건축역사논문집, 1994.12

2) 16세기 이후 주거의 평면구조는 남녀의 사회적 역할에 따라 안채에서 사랑채 중심으로 변해가게 된다. 김종현·주남철, 한국전통주

그런데 양란(兩亂) 이후 사회적, 정치적 변혁에 따른 공명첩(空名帖)의 남발, 관직매매, 호패(號牌) 위조 등으로 인해 반상제(班常制)를 근간으로 한 신분제도가 문란해지고 양반계층의 수적 팽창, 세분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특히 당시의 경기지역에는 농상공업, 중계무역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한 상인(常人) 출신의 양반이 등장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배경이 조성되었다. 이들 신흥양반의 주거는 출신성분에 따른 생활상의 특성, 경제적 여건 등의 복합적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되어 전통 양반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sup>3)</sup>

조선 말기에 등장한 신흥양반의 주거는 당시 조선의 정치적, 사회적 근대화 과정을 반영함으로써 주거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조선 시대 전통주거에 나타나는 남녀공간의 분리적 현상은 이들 신흥 양반주거에서 차별화되어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선 말기 경기지역에 건립된 신흥 양반주거의 채와 마당의 배치 및 관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 말기 유교적 조영원리로서 내외법이 주거에 끼친 영향을 파악하고 생활적 측면에서 남녀 공간 구성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조선시대 전통 양반가에서 남녀의 생활영역은 각각 사랑채와 안채 그리고 이에 부속된 사랑마당과 안마당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경기지역의 상류주거는 ㄱ자형 안채와 바깥채(사랑채)<sup>4)</sup>에 둘러싸인 안마당을 중심으로 한 ㄷ자형의 배치를 근간으로 신분 배경, 경제 규모 등을 반영한 다양한 변용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거의 각 채와 마당이 담당하는 남녀 영역의 구분, 주생활의 중심 공간인 안마당 주변의 건축적 연결과 차단,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남녀 영역의 경계선을 고찰함으로써 조선 말기 경기지역 남녀 공간구성의 특성을 파악하였다.<표 2>

구체적으로 2장에서는 조선조 내외법에 따른 주거내 남녀공간의 분리 현상을 고찰하였으며, 남녀의 사회적 역할에 따른 사랑채와 안채의 주생활적 측면에서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개항을 전후한 19세기에 건립된 경기지역의 양반주거 중에서 주택의 소유주

거에 있어서 안채와 사랑채의 분화과정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96.2

3) 상인으로부터 부를 축적하여 성장한 부농주거는 민가적 내용과 사대부가 형식의 중간적 주거양식이고 이는 부농층의 사회적, 역사적 존재형태에 의해 그 특성이 결정된다. 김봉렬, 조선 후기 한옥 변천에 관한 연구-부농계층의 존재형태와 주거양식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론, 1982

4) 경기지역의 상류주거에서 사대부가의 경우는 별도의 바깥채(행랑, 대문)가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신흥양반주거로 추측되는 경우는 안채와 마주보는 바깥채가 사랑영역과 행랑영역(대문, 창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가 당시의 농촌사회를 배경으로 성장한 신흥양반으로 판단되며, 각 채의 원형이 보존된 5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자체에 의해 문화재로 선정되어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보존상태가 양호한 사례를 선정하였다.<표 1>

## 2.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남녀공간의 분리

### 2.1. 조선조의 내외법과 남녀공간의 분리

조선시대 상류주거에 나타나는 남녀공간의 분리현상은 정치적 이념으로서 내외법 등의 유교적 이념에 기인한 것이다. 조선조는 집권 초기 유교적 가치를 통치 이념으로 내세우면서 남계중심사회로의 변모를 시도하여 사회적 지위와 상속, 교육 등에서 남녀의 지위에 차등을 두었다. 고려시대에도 남자의 사회적 지위가 다소 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남녀의 지위는 조선의 유교적 이념 하에서 부부유별 등의 상하종속적 개념으로 변모하였다. 유교적 통치 개념은 조선 중기 이후 사회전반에 영향을 끼쳤고 남녀의 지위 차등과 내외사상 등은 조선주거의 전형적 평면 및 공간 구성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sup>5)</sup>

특히, 유교적 이념으로서 내외법은 조선시대 전통주거의 사랑채와 안채의 분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내외법은 남녀간의 자유스러운 접촉을 금하는 행동규제법으로 이에 따르면 여성은 임의로 문 밖 출입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3촌까지의 친척 이외의 사람을 방문할 수도 없었다. 세종연간에는 ‘남자와 여자는 대청을 달리할 것’ 등의 건의가 있었으며,<sup>6)</sup> 부부는 결혼 직후부터 안채와 사랑채에 격리되어 부부중심이 아닌 내외지법의 질서 하에서 생활하였다. 집을 지을 때 내외가 구별되게 짓고 남자는 들어가지 말고 여자는 나가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 결과 조선조의 주택에서 기본적으로 사랑채와 안채는 별동으로 분리되었으며, 안방과 사랑방, 내측과 외측을 두었고 밥상도 따로 받게 하였다. 또한 초기부터 부부별침(別寢)을 명하여 중상류주택에는 사랑채에 침방을 마련하였고 서민주택에는 별도의 사랑방에 남성의 침소를 두었다.<sup>7)</sup>

조선 초기부터 권장되었던 남존여비, 남녀유별에 근거한 내외법의 시행과 주거형태는 취침과 식사 등의 일상생활과 비밀상적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역으로 유교적 원리에 바탕을 한 양반계층의 주생활 의식은 주거공간에 반영되었다. 그 결과 조선시대의 상류주거는 별동의 사랑채와 안채를 지니며, 이들의 물리적 거리와 향, 배치 등의 건축적 방법을 통해 남녀의 생활공

5) 홍형욱, 한국주거사, 민음사, 1997, pp.133-149

6)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시대 생활사, 역사비평사, 1996, pp.120-121

7)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1996, pp.60-61

간은 분리되었다. 부연하면 채 사이의 물리적 거리는 채에 딸린 마당에 의해 유지되며, 각 채와 마당의 배치와 향의 다양한 조합에 의해 남녀 생활공간은 분리되었다. 이외에도 남녀의 진입과 주동선을 분리하기 위한 문, 담, 부속채 등의 건축적 장치를 설치하였다.<sup>8)</sup>

## 2.2. 안채와 사랑채의 사회적 역할 분담

조선시대의 상류주거에 나타나는 남녀공간의 엄격한 공간분화는 유교적 이념에 따른 결과이면서 동시에 남녀의 사회적 역할에 따른 기능적 분화의 결과이다. 성별에 따른 공간분리는 지역과 시대를 불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서 남녀유별의식은 그리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전의 주거에서 남녀공간의 영역이 어느 정도 구분되었다면 그것은 남녀의 사회적 역할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sup>9)</sup> 마찬가지로 조선 시대 상류주거에 나타나는 남녀영역의 분리현상은 사회적 역할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통주거의 사랑채는 여성공간과 대비되는 관점에서 남성공간으로 여길 수도 있겠으나 본질적으로 조선 후기의 사회적 변화에 따른 사회적 기능을 포용하기 위한 공간이다.<sup>10)</sup> 즉, 조선 중기 이후 중앙관직의 기회를 잡지 못한 사림(士林)들은 서원을 설립하여 유교적 이념을 전파하고 문벌(門閥)을 강화하는 구심점으로 활용하였다. 지방 사림들의 사회적 활동은 주거공간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주거내 향촌사회를 지배하기 위한 ‘사회적 공간’으로서 남성영역인 사랑채가 발달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sup>11)</sup> 요컨대 조선 중기 이후 사랑채의 분리, 확대 현상은 향촌사회를 지배하기 위한 사림들의 사회적 요구가 태종시대의 ‘부부별침’ 등의 유교적 생활원리와 접점을 찾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유사한 관점에서 안채의 폐쇄적 공간 성격은 남녀유별에 대한 유교적 이념의 영향일 뿐만 아니라 17세기 이후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남녀의 사회적 역할 분담에 따른 결과인 것이다. 즉, 지방 사림들의 활발한 사회활동과는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축소되면서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사회적 역할과 가정적 역할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분리되었을 것이다. 그 결과 안채는 사회적으로는 부속채, 담, 문 등을 통해 폐쇄적인

8) 예컨대 조선 중기의 현존 유구를 살펴보면 큰대문과 사랑채로부터 안채에 이르는 중문은 남자들의 공식적인 출입문인 반면에, 여자들은 바깥대문이 아닌 별도의 작은 문 등을 통해서 안채와 안마당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9) 김종현, 앞의 논문, pp.82-83

10) 위의 논문, p.85

11) 김종현은 16-17세기 경상도 지역의 유구를 예로 들면서 사람들에게 의해 유교가 체계적으로 정리되던 16-17세기를 거치는 동안 안채와 사랑채가 분리되면서 사랑채는 보다 확장되어 지금의 평면구조로 조정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위의 논문, p.84

구조를 지니지만, 주택 내부로는 안마당 중심의 주생활의 무대로 개방적 공간구성을 갖게 되었다.<sup>12)</sup> 요컨대 안채를 남성공간에 대한 대립적 공간으로 보는 관점보다는 외부로부터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주생활의 중심공간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요컨대 조선 중기 이후로 갈수록 분명해지는 사랑채와 안채의 분리 현상, 남성과 여성의 역할 분담에 따른 각 영역의 고유의 성격 차이는 유교적 이념에 따른 남녀 분리의 개념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프라이버시를 필요로 하는 주거공간에 사랑채라는 반사회적공간을 포용하는 공간으로 발전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으로서 조선 후기 경기지역의 상류주거에 나타나는 남녀 공간구성의 특성 역시 주생활적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 3. 조선 말기 경기지역 상류주택의 남녀 공간구성의 특성

### 3.1. 사례 선정 및 분석틀의 설정

본 연구의 사례는 국가와 지자체에 의해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19세기 경기지역에 건립된 상류주택 14채를 1차 대상으로 하였다. 개항을 전후한 19세기는 본격적인 외래 주거문화가 유입되기 이전으로 전통주거의 조영원리를 근간으로 당시 주거의 근대적 변천과정이 반영된 중요한 시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소유주가 신흥 양반계층이면서 각 채의 원형이 잘 보존된 5채를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sup>13)</sup>

<표 1> 문화재로 지정된 19세기 경기지역의 가옥 및 사례 선정

지정	구분	NO	가옥명	소재지	설립연도	보존 상태	소유주의 출신성분
국가 지정	중요 민속 자료	124호	정용채	화성 서신	1887	양호	부농
		125호	박희석	화성 서신	1899	양호	부농
		126호	김영구	여주 대신	1860	행랑채 소실	중앙관료
		127호	여재연	이천 울면	19C초	원형 훼손	
		128호	백수현	양주 남면	19C후	사랑채 소실	명성왕후
시도 지정	경기 유형 문화재	46호	명성황후	여주 여주읍	19C후	원형 훼손	
		105호	이항로	양평 서종	19C중	원형 훼손	전통양반
	경기 민속 자료	5호	김병호	양평 용문	1893	안채만 보존	전직내시
		6호	정원채	황성 남양	20C초	양호	부농
		7호	김정식	양평 양평	19C초	양호	부농
	경기 문화 자료	32호	철증외가	강화 선원	1850	양호	외척
		55호	이천보	가평 상면	1867	원형 훼손	
74호		홍승인	화성 정남	19C후	양호	부농	
		95호	정운석	군포 속달	19C초	양호	사대부

12) 위의 논문, p.87

13) 정원채 가옥은 사랑채 상량문을 근거로 1904년에 신축되었으며, 안채는 이보다 약간 앞선 19세기 후반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되어 사례에 포함시켰다.

사례분석은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2>

첫째, 조선시대 상류계층의 남녀 공간구성이 일반적으로 채와 마당을 중심으로 형성된다는 사실을 토대로 안채와 사랑채의 독립성 여부와 함께 각 채와 마당에서 이루어지는 남성과 여성의 주생활적 측면에서의 역할을 파악하였다.

둘째, 전통주거의 남녀 생활영역은 여러 가지 건축적 방법, 장치 등을 통해 차단 또는 연결되는데, 경기지역 상류주거가 ㄱ자형 안채와 안마당을 중심으로 한 ㄷ자형을 원형으로 경제규모와 신분적 차이에 의해 변용이 이루어지고 규모가 결정되므로 안마당을 중심으로 한 건축적 장치를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우선 여성영역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랑(행랑)마당으로부터 안마당으로 통하는 중문의 존재여부를 파악하였다. 또한 사랑영역에서 안마당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연결 장치, 안채의 건넌방에서 안마당으로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건축적 요소를 파악하였다.

셋째, 위의 두 가지 분석틀을 토대로 남성과 여성 영역 사이의 경계선과 상호 접근성을 고찰하였다. 남녀영역에 따른 경계선을 관찰함으로써 거주인과 방문인 간의 내외 사상의 존속 여부, 거주공간내 남녀의 사회적 활동 범위, 구체적인 가족생활에서 남녀공간의 분리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내외법과 주생활의 특성에 따른 거주인과 외부인의 경계적 측면을 고찰하였으며, 다음으로 가족생활에서 남녀 간의 영역과 경계를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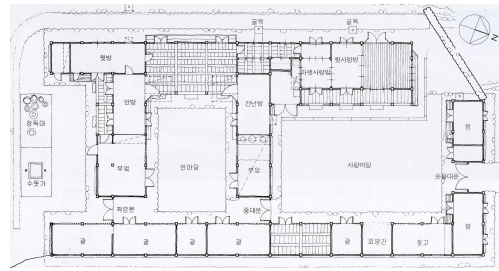
<표 2> 분석틀의 설정

분석틀의 설정		구체적 분석 내용	
1. 남녀 영역의 분리와 연결	채의 분리와 연결	안채와 사랑채의 독립성 여부(물리적, 시각적 분리)	
	채와 마당의 역할	안마당(안채)	여성영역 혹은 가족영역으로서의 안마당
		뒷마당(안채)	가사활동중심의 역할
		사랑마당	-남성의 사회적 영역 -바깥마당과의 통합 여부
행랑(바깥)마당	작업영역(하인), 사회적 영역		
2. 남녀 영역의 연결과 차단을 위한 건축적 방법	사랑(바깥)마당에서 안채영역으로 통하는 중문	안채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중문의 존재 여부	
	안마당과 사랑방의 연결 장치(문, 후퇴, 쪽마루)	건축적 장치에 의한 사랑방에서 안채영역으로 접근성 파악	
	안채의 건넌방과 사랑영역과의 연결	건넌방의 뒷문(열문) 등을 통한 사랑방과의 연결 여부	
3. 남녀 영역의 경계선	거주인과 외부인의 경계	바깥주인의 관점에서 외부여성의 진입한계선	방문하는 외부여성의 사랑영역의 접근성을 고찰
		안주인의 관점에서 외부남성의 진입한계선	방문하는 외부남성의 안채영역의 접근성을 고찰
	가족간의 관계에서 남녀영역의 경계와 생활	가족의 남녀구성원 영역 간의 경계선을 고찰	

### 3.2. 사례 분석

#### (1) 정용채 가옥

-개요 : 주변의 전답과 바다를 배경으로 부를 축적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며, 전통적인 양반주택의 조영방식을 충실히 따르는 농촌의 상류주거이다. 솥을대문의 묵서명



<그림 1> 정용채 가옥 평면도

에 1887년에 세워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안채는 이보다 50년쯤 전에 지어졌다고 한다. 따라서 건립 초기에는 사랑채 마당이 바깥마당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전체적인 배치는 가로로 누운 달월자형으로 남측의 안쪽으로부터 뒷마당(뒤안), 안마당, 사랑마당, 바깥마당의 분화가 분명하며, 외견상으로 내외공간의 구분이 뚜렷하다. 즉 사랑마당과 안마당은 중문으로 구분되어 안마당의 폐쇄성이 분명하며 대부분의 살림, 가사공간은 안채 뒤편의 뒷마당으로 배치되었다.

-남녀영역의 분리 : 조사대상 가옥 중 주생활적 측면에서 남녀의 공간 분리가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다. 사랑영역은 남성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방적, 독립적이며, 안채영역은 주거 내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안채 뒤로 물러난 배치를 지닌다. 안마당은 사랑마당과 중문으로 구분되어 매우 폐쇄적이지만, 안방과 건넌방 아래의 양쪽 부역에서 접근성이 뛰어나도록 계획됨으로써 일상생활과 관혼상제 등의 비일상적 공간으로 주로 이용되었을 것이다. 또한 안채 뒤편의 뒷마당의 가사영역은 안채 날개와 행랑채에 의해 ㄷ자형으로 위요되어 독립되어 있다. 뒷마당은 사랑영역을 거치지 않고 동측의 쪽문으로 직접 출입이 가능하다.

-남녀영역의 건축적 연결과 차단 : 안채와 사랑채를 옆으로 나란히 앉히고 전면 서측에 각각의 마당을 두었다. 두 마당 사이의 중문은 외부인에게는 차단의 역할을 하며 내부인에게는 남녀 영역을 이동하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그림 2> 부연하면 이 중문은 바깥 주인의 공식적인 출입문이며, 안채의 날개(건넌방, 부역)와 함께 남녀영역을 분리하는 역할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안마당은 일상생활에서 여성의 생활영역이면서 동시에 남성과 여성의 분리된 영역의 완충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랑채와 안마당은 외부에서 보았을 때 분리되었으나, 뒷퇴를 통해 긴밀히 연결됨으로써 사대부가의 형식을 갖추면서도 일상생활에서의 편리를 도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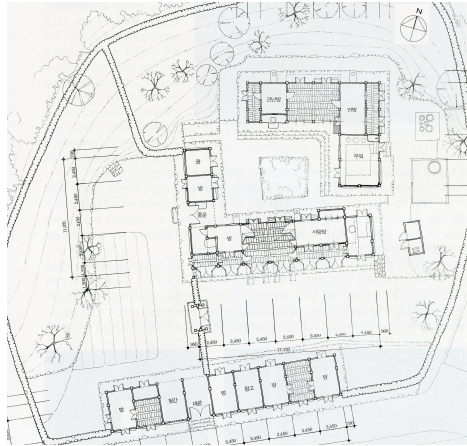


<그림 2> 사랑마당과 안마당 사이의 중문

-남녀영역의 경계선 : 주택을 방문하는 여성은 정문 출입구보다는 뒷마당 동측의 쪽문으로 드나들 수 있다.

반면에 바깥주인의 손님은 대문칸으로 출입하여 사랑마당 안쪽으로 출입하지 못했을 것이다. 일상생활적 측면에서 가족간의 남녀의 영역구분은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난다. 즉, 안마당에서 안채 그리고 뒷마당에 이르는 영역이 여성 고유의 영역이라면 남성 영역은 사랑채와 사랑마당으로 한정되었을 것이다.

(2) 흥승인 가옥



<그림 3> 흥승인 가옥 평면도

-개요 : 전하는 바에 의하면 흥씨의 마름집<sup>14)</sup>으로 경기지역의 전형적인 신흥 양반주거로 추측된다. 주택의 건립 시기는 조선 말기(19세기)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 전체적으로 서울의 사대부집을 모방한 고졸한 건축기법을 사용하면서도 사랑채와 안채의 전면 모두에 분합문을 설치한 것은 갑오경장 이후의 기법이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배치는 안채와 사랑채의 ㄷ자형 배치에 사랑채 전면으로 일(一)자형 행랑채가 놓여 있으며, 행랑채의 양측에서 시작된 담에 집안 전체가 둘러싸여 있다. 소유주의 출신성분이 확실하고 후대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보존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시간에 따른 주택의 구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

-남녀영역의 분리 : 사랑채와 안채영역은 행랑마당으로부터 분리된 각각의 중문을 통해 진입함으로써 비교적 명확하게 남녀공간이 분리되어 있다.<그림 4> 각각의 중간문은 사랑채와 안채의 주인과 외부 방문객의 시선을 차단함으로써 각각의 고유한 영역을 배려하였다. 반면에 각각의 중문을 들어서면 각 마당이 연결되어 남녀 영역의 경계가 모호하여 가족 간의 왕래는 비교적 자유로운 것으로 판단된다. 전후퇴를 사용한 사랑채의 상당한 규모는 바깥주인의 권한을 짐작할 수 있게 하며, 이전의 서울과 경기지역 사대부가에서 보편



<그림 4> 행랑마당에서 사랑채와 안채로 연결되는 중문

적으로 쓰인 고전적인 분합문을 달아 차폐함으로써 사회적 영역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안마당은 사랑채로부터의 접근이 자유로운 편이며, 여성공간은 안방 뒷퇴를 보아 알 수 있듯이 뒷마당으로 물러나 있게 된다.

-남녀영역의 건축적 연결과 차단 : 행랑마당은 완전히 독립된 영역의 담으로 구획되지만 사랑마당과 뒷마당이 만나는 대지의 동쪽은 연결되어 있고 안마당과도 연결됨으로써 생활의 편리를 위해 가족과 주종(主從) 간의 남녀영역의 구분은 모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랑마당과 안마당으로 통하는 각각의 중문은 외부방문객과 가족 간의 프라이버시를 차단하기 위한 건축적 장치로 해석할 수 있다. 사랑방과 사랑대청의 후면에서 안채로의 접근성이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안마당을 가족생활의 중심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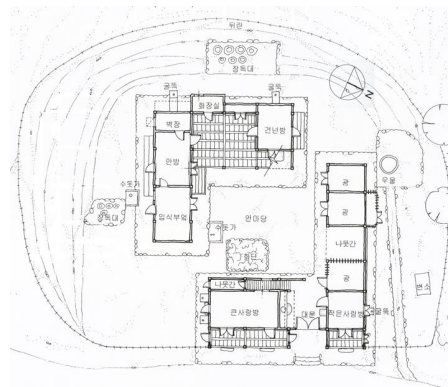


<그림 5> 안마당으로 연결되는 사랑채의 문, 쪽마루

-남녀영역의 경계선 : 사랑채와 안채 영역으로 진입하는 각각의 중문은 방문객과 주인과의 경계를 이룬다. 분리된 중문으로 인해 남녀의 공간은 확연히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생활에서는 안마당을 통해 사랑채와 안채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사랑마당, 안마당, 뒷마당도 동측마당을 통해 연결되어 있어 가족 간의 생활에 있어 남녀 간 물리적 경계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박희석 가옥

-개요 : 주택 전면의 농지와 500m 떨어진 바다에서 어업을 통해 부를 축적한 경기지역의 전형적인 부농주거이다. ㄱ자형 안채와 바깥채가 안마당을 둘러싼 ㄷ자형 배치이며, 1899년에 동시에 건립되



<그림 6> 박희석 가옥 평면도

었다. 현재 도로에 면한 바깥채 전면에 바깥마당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측되며, 안마당을 에워싼 안채와 바깥채는 건립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녀영역의 분리 : ㄱ자형의 안채는 독립되어 있으며, 사랑영역은 대문간을 중심으로 바깥채에 부속되어 있어 남녀공간은 기본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사랑영역은 대문간을 중심으로 큰 사랑방과 작은 사랑방으로 구분되

14) 지주를 대신하여 조각권을 관리하는 사람의 집

며 비록 초가지붕을 지녔지만 전면 뒷마루를 통해 개방된 구성됨으로써 반사회적 성격을 지닌다. 여성공간은 안채를 중심으로 한 앞마당과 뒷마당에서 이루어지며, 외부의 프라이버시에 다소 노출되어 있는 구조이다.

-남녀영역의 건축적 연결과 차단 : 안채를 중심으로 한 여성영역과 바깥채의 사랑영역은 안마당을 중심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그림 7> 작은 사랑방에서는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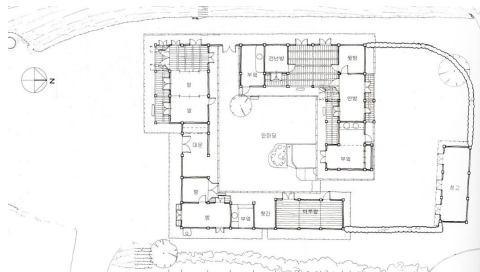
<그림 7> 가족생활중심의 안마당

마당으로 직접 출입가능하며, 큰사랑방의 남측면 문을 통해 안마당의 측면으로 진입이 가능하다. 또한 건넌방에서도 대청 반대편의 출입문을 통해 안마당으로 진입 가능함으로써 사랑영역으로의 접근성을 높인다. 안마당은 대문칸을 통해 직접

외부와 연결됨으로써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우려되는데, 어느 정도 깊이를 지니는 대문칸과 간략한 내외담을 통해 보완하였다

-남녀영역의 경계선 : 안주인의 방문객은 대문간으로 출입할 수밖에 없어 바깥주인과 외부여성간의 별도의 경계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외부남성은 안마당으로의 출입이 제한되었을 것이며, 외부인과 가족생활의 경계는 바깥채의 대문칸이다. 그 결과 안마당을 중심으로 주생활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가족내 구성원 간의 남녀 경계는 무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김정식 가옥



<그림 8> 김정식 가옥 평면도

-개요 : 마을의 가옥들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며 이 지역의 모든 전답을 관리하고 조세를 거두어들이는 농촌의 세력가의 집으로 전한다. 경기지역의 전형적인 튼□자형의 평면구조이며, 19세기 초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1995년 사찰로 개조되어 각 공간들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채와 마당의 분화가 뚜렷하며 가옥의 규모에 어울리는 넓은 바깥마당과 사랑영역을 중심으로 남성의 사회활동과 작업활동 등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되며, 여성영역은 안채와 뒷마당 그리고 뒷마당의 부속채, 연결된 담으로 한정되었다.

-남녀영역의 분리 : 여성영역으로서 ㄱ자형의 안채는 전후퇴가 모두 발달하고 안방과 건넌방이 확장, 분화되어

커다란 규모를 형성한다. 안채의 대청-건넌방, 안방-부엌 축 모두 앞퇴를 통해 안마당으로 연결된다. 뒷마당은 안방 후면의 뒷마루를 통해 연결되며, 안채, 부속채, 담으로 둘러싸인 여성영역을 형성한다. 바깥채의 남측 날개에 부속된 사랑영역은 중앙의 대문칸을 좌우로 큰사랑방과 작은사랑방으로 구분되었다. 사랑채는 남성의 사회적 활동영역으로서 전퇴를 통해 바깥마당으로 개방되었다. 사랑 대청에 사분합문을 설치하고 팔작지붕을 얹음으로써 당시 상류층의 주거 형식을 따르는 과시적 조영방식을 나타내고 있으며, 반사회적 영역으로서의 표현적 특성을 나타낸다.

-남녀영역의 건축적 연결과 차단 : 남성영역은 사랑채를 중심으로 외부 방향으로, 여성영역은 안채 뒤편으로



<그림 9> 작은사랑채에서 안마당으로 용이한 접근성

발달하는 경향이 명확하다. 또한 중앙의 안마당은 남녀영역의 연결, 완충적 역할을 하고 있다. 각 사랑방에서 안마당으로 직접 출입가능한 문과 쪽마루가 설치되어 있으며,<그림 9> 발달한 안채의 앞퇴를 통해 안방, 대청, 부엌으로부터 안마당으로 출입이 자유로운 것으로 보아 안마당이 주생활의 중심영역으로 볼 수 있다. 사랑채를 제외한 주거 전체는 외부에 대해 폐쇄적인데, 대문칸의 내외문에 의해 가족생활의 중심공간으로서 안마당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다.

-남녀영역의 경계선 : 안주인의 손님은 대문칸을 통하지



<그림 10> 큰사랑채에서 안마당의 출입(중앙)과 안마당 쪽문(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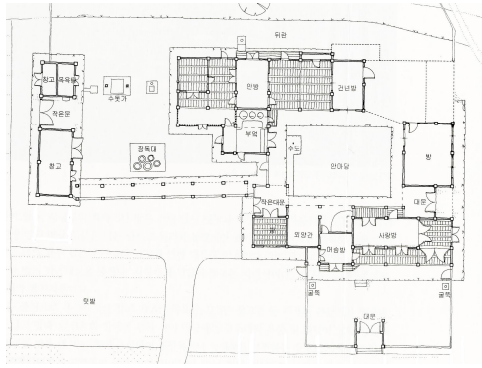
않고 안마당의 서편에 있는 쪽문을 통해 안채 영역으로 직접적인 출입이 가능하다.<그림 10> 바깥주인의 손님은 사랑채 영역에 머무르게 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마당으로의 출입은 제한될 것이다. 주택의 모든 영역에서 안마당으로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가족의 주생활은 안마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따라서 가족 간의 남녀 영역의 경계와 구분이 모호하다.

(5) 정원채 가옥

주변의 너른 들판을 경제적 터전으로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건립된 부농주거이다.<sup>15)</sup> 사랑채 대문칸의 상량문에 따르면 1904년에 건립되었다. 안마당을 중심으로 T자형의 안채와 ㄱ자형의 바깥채가 둘러싼 변형된 튼□자형의 배치이다. 바깥마당과 별도의 담장으로 둘러싼 사랑마당이 후기적 특성을 보이며, 안방 북쪽으로 연장된 광과 담장에 둘러싸인 뒷마당이 여성중심공간을 형성한다.

-남녀영역의 구분 : 사랑채는 커다란 규모로 격식을 갖

15) 가옥주의 선대가 화성에서 상업을 통해 부를 축적하였으며, 이곳에 농지를 마련하여 농업을 통해 성장하였다고 전해진다. 김홍식, 김왕직, 한국의 건축문화재, 경기편, 기문당, 2012, p.486



<그림 11> 정원채 가옥 평면도

추였으며, 별도의 담장으로 둘러싼 독립된 마당, 별도의 출입문을 지님으로써 고유의 남성영역의 역할을 한다. 안마당은 사랑채로부터의 접근이 용이한 것으로 보아 가족생활의 중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 안마당에서 뒷마당으로 연결되는 중문을 설치함으로써 오히려 뒷마당이 가사활동의 중심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여성영역으로서 뒷마당에는 장독대, 우물 등이 설치되며 바깥채 영역을 거치지 않고 북측 별채의 작은 문을 통해 출입이 가능토록 하여 여성영역으로서의 독립성을 확보하였다.

-남녀영역의 건축적 연결과 차단 : 여성의 주생활공간인 뒷마당과 남성영역인 사랑마당은 담장과 채에 의해 철저히 영역이 구분되고 별도의 대문을 두어 분리되어 있다. 반면에 물리적으로 주택의 중앙에 위치한 안마당은 남녀영역을 연결적, 완충적

역할을 하면서 가족생활의 중심 역할을 담당한다.<그림 12> 사랑방의 쪽마루를 통해 안마당과 연결되며, 안채의 안방과 건넌방의 대청 반대편에는 출입문이 있어 안마당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그림 12> 가족생활 중심의 안마당

-남녀영역의 경계선 : 안주인과 바깥주인의 손님은 안마당(대문)을 거치지 않고 직접 뒷마당과 사랑채로 진입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그림 13> 이는 별도의 출입구를 통해 가능한 것인데, 19세기 후반까지도 남녀를 불문하고 내외의 접촉을 차단하려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독립된 사랑마당과 뒷마당은 가족 간에도 내외분리사상이 여전히 유효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다만 필요한 경우 안마당을 중심으로 가족 간의 생활적 교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림 13> 안채로 직접 출입하는 쪽문(왼쪽), 안마당과 뒷마당 사이의 쪽문(오른쪽)

####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조선 말기 상류주택의 남녀 공간구성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19세기에 건립된 경기지역의 신혼양반주거에 나타난 남녀 생활영역의 구분과 연결 관계, 이와 관계된 건축적 장치, 거주인과 외부인의 다양한 관계에서 생성된 경계적 측면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19세기 경기지역의 상류주거에는 전통적인 내외사상이 여전히 주요한 조영원리로 작용하였으며,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구분에 따라 주거내 공간 구분이 비교적 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용채 가옥을 제외한 조사대상 대부분의 주거에서 안채와 사랑채는 물리적으로 구분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남성과 여성의 주생활 영역으로서 뒷마당과 바깥마당이 분명하게 구분되었다. 구체적으로 바깥채의 사랑영역은 바깥마당 방향으로의 외부향적 개방성을 지님으로써 남성중심의 공간적 특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안채 중심의 여성영역은 안마당에서 뒤로 물러나 안채의 뒷퇴, 부엌, 담장으로 둘러싸인 뒷마당을 중심으로 여성 중심의 가사활동이 이루어졌다.

둘째, 남녀의 생활공간으로서 안채와 사랑채는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주생활적 측면에서는 안마당을 중심으로 공간적 통합이 이루어졌다. 이는 정용채 가옥을 제외한 나머지 가옥의 공통된 특성인데, 바깥채의 남성영역이 외부로는 공격,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내적으로는 주거내부로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여성영역의 경우는 안채 뒤편의 뒷마당(뒤안)으로 가사활동영역이 집중되면서도 안마당 방향으로 개방됨으로써 남성영역과의 시각적, 물리적 교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족생활의 중심공간으로서 안마당의 역할은 이전 조선시대 전통주거의 여성공간으로서 안마당의 일반적 특성과 차별화된 것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내외사상이 약화되고 가족중심의 농경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주생활의 중심으로서 안마당 중심의 공간적 통합은 역으로 안마당을 에워싸는 안채와 바깥채(사랑채)에 면한 퇴의 발달 등의 건축적 연결 장치들의 발달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랑채와 안채는 남녀 고유의 영역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도 안마당 중심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사랑채의 뒷퇴와 안채의 앞퇴가 발달하고 각 방에서 안마당으로의 시각적, 물리적 접근을 위한 문, 퇴, 마루 등의 건축적 요소가 발달하였다. 이러한 건축적 장치의 발달은 남녀의 생활영역이 명확히 구분된 경우(홍승인, 정원채 가옥)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다.

넷째, 조사 대상 가옥에서 거주인과 외부인 간의 남녀영역의 경계는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난 반면에 가족구성원간 내외의 공간 분리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외부여성은 가능한 사랑 영역을 거치지 않고 주택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한 경우가 다수였

<표 2> 종합분석표

분석대상		정용채 가옥	홍승인 가옥	박희석 가옥	김정식 가옥	정원채 가옥	
1. 남녀 영역의 분리와 연결	체의 분리	안채와 사랑채	시각적 분리 (물리적 연결)	물리적 분리	물리적 분리	물리적 분리	물리적 분리
	안마당(안채)	여성고유 영역(일상) -남녀공간의 완충적 역할	가족생활의 중심영역 -중문을 통해 외부로부터 프라이버시 보호 -사랑영역에서 접근 용이	가족생활의 중심영역 -큰, 작은 사랑방에서 접근 가능 -대문으로부터 안마당의 시선이 어느 정도 차단됨	가족생활의 중심영역 -큰, 작은 사랑방에서 접근 가능 -대문간의 내외담을 통해 안마당의 프라이버시를 보호	가족생활의 중심영역 -사랑방에서 접근 가능 -남녀공간의 완충적 역할	
	채와 마당의 분리	안마당(안채)	가사활동의 중심 -부엌, 안방의 후퇴로 연결되며, ㄷ자형 안채로 위외됨 -우물, 장독대	가사활동의 중심 -부엌, 안방의 후퇴로 연결 -우물, 장독대	가사활동의 중심 -부엌, 안방의 쪽마루로 연결 -장독대, 우물	가사활동의 중심 -안채 후면의 쪽마루로 연결 -안채, 창고, 담으로 구획	가사활동의 중심 -안채의 후면 부속채와 연결 -장독대, 우물
	사랑마당	남성의 사회적 활동영역 (여성영역으로서 뒷마당과 대비)	남성의 사회적 활동영역 (여성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	현재 일부 유실되었으나, 바깥마당에서 남성의 사회적 활동과 작업활동이 동시에 수행되었을 것으로 추측됨	사랑마당과 바깥마당을 통합(남성의 사회적 활동, 작업활동이 동시에 수행됨)	별도의 담장으로 에워싸여 여성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	
행랑(바깥)마당	작업영역(독립적으로 존재)	바깥마당과 행랑마당이 동시에 존재			작업영역 및 사회적영역으로 추측		
2. 남녀 영역의 건축적 연결과 차단	사랑(바깥)마당에서 안채영역으로 통하는 중문	존재(사랑마당과 안마당 사이) -남녀공간의 분리	존재(행랑마당과 사랑(안)마당 사이) -사회적 영역과 가족영역의 분리 개념	없음 (안마당은 외부인에 대한 프라이버시에 취약함)	없음 (단, 안채는 내외담에 의해 외부인의 시선이 차단됨)	존재 (안마당과 뒷마당 사이) -사랑마당, 뒷마당은 별도의 영역으로 구분	
	안마당과 사랑방의 연결 장치(문, 후퇴, 쪽마루)	시각적으로는 남녀공간이 분리되지만, 후퇴를 통해 안채와 사랑채가 연결	존재 (큰, 작은 사랑방 후면의 문과 쪽마루)	존재 (작은 사랑방의 문과 큰 사랑방의 납측 문으로 연결)	존재 (큰, 작은 사랑방 후면의 문과 쪽마루)	존재 (사랑방 후면의 문과 쪽마루를 통해 안마당과 연결됨)	
	안채의 건넌방과 사랑영역과의 연결	연결 (안대청과 후퇴를 통해 연결)	연결 (안대청 반대편 퇴칸을 통해 안마당과 연결)	연결 (안대청 반대편의 쪽마루를 통해 안마당으로 직접 출입 가능)	연결 (안퇴를 이용해 안마당과 연결)	연결 (안대청 반대편의 문을 통해 안마당으로 직접 출입 가능)	
3. 남녀영역의 경계선	거주인과 외부인간의 경계	바깥주인의 관점에서 외부여성의 진입 한계선 안주인의 관점에서 외부남성의 진입 한계선	대문칸(여성은 뒷마당의 쪽문으로 진입) 행랑마당에서 사랑마당으로 진입하는 중문	없음 (외부여성은 바깥채의 대문으로 진입함)	없음 (외부여성은 안마당 서측의 쪽문으로 진입 가능함)	외부여성은 사랑마당으로의 접근이 차단됨	
	가족간의 관계에서 남녀영역의 경계와 생활	사랑마당과 안마당 사이의 중문	행랑마당에서 안마당으로 진입하는 중문	없음 (외부남성은 안마당으로 출입이 제한됨)	바깥채의 대문 (외부남성은 안마당으로 출입이 제한됨)	안마당은 가족중심의 영역으로, 뒷마당은 여성의 가량마당으로 활동이 제한되는 경향이 매우 강함, 안마당은 가족간의 소통 유롭게 이루어졌으며, 실제적인 남녀영역의 경계는 모호함 가능함	

으며(정용채, 홍승인, 박희석 가옥), 조사 대상 모든 가옥에서 외부남성은 안채영역으로의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반면에 가족구성원 간의 남녀영역의 경계가 비교적 엄격한 경우(정용채, 정원채 가옥)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주택에서 안마당을 중심으로 주생활이 이루어짐으로써 가족구성원 간에 남녀영역의 경계는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조선 말기 경기지역 상류주거에 나타난 남녀 공간구성의 특성을 파악한 결과 유교적 조영원리에 따른 전통주거의 남녀공간의 구분은 경제적, 생활적 필요에 의해 점차 변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전통주거는 남녀 영역으로서 사랑채와 안채영역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안마당을 중심으로 가족의 주생활이 집중되는 방향으로 변천되었다. 이와 같은 조선 말기 전통주거에 나타난 남녀 공간의 변화는 20세기 이후 외래문화의 영향으로 인한 속복도의 출현, 안채로의 공간집중화, 설비 구조의 변화 등이 나타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전통사회의 근대화하에 따른 주거근대화의 일면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제4권 중요전통민가편, 2003, 경기출판사
2. 조성기, 한국의 민가, 한울, 2006
3.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1996
4. 김홍식·김왕직, 한국의 건축문화재 2경기편, 기문당, 2012
5. 고문서학회, 조선시대 생활사, 역사비평사, 1996
6. 한국주거사, 민음사, 1997
7. 박선희, 조선시대 반가의 주생활과 공간사용에 대한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1992
8. 최일, 조선 중기이후 남부지방 중상류주거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89
9. 김봉렬, 조선 후기 한옥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석사논문, 1982
10. 나종현, 해방이전에 지어진 경기도 지역의 농촌주거에 대한 조사 연구-평면형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2000
11. 신지영,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남녀공간 구성에 관한 문화적 연구, 아주대 석사논문, 1996
12. 김기주·김성우, 관혼례를 중심으로 본 조선시대 반가에서의 행례규범과 공간사용, 한국건축역사논문집, 1994.12
13. 김중헌·주남철, 한국전통주거에 있어서 안채와 사랑채의 분화 과정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6.2

[논문집수 : 2013. 08. 30]  
[1차 심사 : 2013. 09. 22]  
[게재확정 : 2013. 10. 11]